모두 위한 기도는 기복 아닌 '수행'



여예진 이사장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불심이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였다.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고 평생 봉사하는 삶으로 회향하고 있다. 여 이사장은 부산학부모총연합회 회장, 부산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부회장, 부산유엔 홍보이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21, 22대 회장을 역임했다. 통일부장관 표창장, 부산시장 표창장,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공로패,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장 등 다수 수상했다.

그대는 자비보살

여예진 한국한의원 이사장 (사중금박물관 관장)

봉사와 나눔의 삶

범어사 등 여러 불교대학 졸업

범어사와 30년 인연 이어

금정불교대 총동문회장 활동하며

동문회 무료급식소 20년 봉사

반찬배달, 문화탐방 등 봉사회향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

각종 봉사관련 수상 100여 건

제등행렬 등 부산불교 기둥 역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참 열심히 살았죠?"

부산시장 표창장, 통일부 장관 표창장, 검찰총장 표창장, 부산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봉사대상…. 방 안에는 상패들이 가득했다. 어림잡아 100여 개는 넘어 보였다. 대부분 남을 도운 행적의 흔적이다. 상장과 상패의 키워드는 '봉사'와 '나눔'이다. 대부분의 상장과 상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 상장과 상패의 주인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오직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여예진(65) 한국한의원 이사장을 1월 7일 사중금박물관에서 만났다.

봉사하는 삶 복된 삶

새벽 6시, 추운 새벽임에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23년 동안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무료급식소 현장이다. 힘겨운 이웃을 위한 공양간이다.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는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밥을 받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섰다. 추운 새벽에 장을 보고 들어온 봉사자들은 익숙한 장면인 듯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반찬거리를 풀어 다듬고 쌀을 안치며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쉴 틈이 없다. 추운 겨울 새벽길을 뚫고 찾아온 손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봉사자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지난 2년간 급식소 회장을 맡았던 여 이사장이 급식소의 모습을 떠올렸다.

부산 범어사역 근처에서 매주 목요일 문을 여는 무료급식소에는 800여 명의 어르신이 찾아오고 있다. 한 달 동안 식비만 400만원이 넘고 일 년으로 치면 5400만원이 필요하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을 지낸 여 이사장은 급식소 회장을 맡았던 그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여 이사장이 범어사와 인연을 맺은 지는 30년이 넘었다. 범어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여 이사장은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여 이사장은 불교대학을 생각했고 그때부터 여러 불교대학을 찾아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이었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총동문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무료급식소가 처음에는 구서동 지하철 근처에서 시작했어요.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건 20년이 넘었죠.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회장직을 맡은 건 2년이었지만 급식소와 여 이사장의 인연은 그 2년이라는 세월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 이사장이 회장직을 지낸 것은 오랫동안 쌓고 다져온 신뢰와 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자리였다. 여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는 범어사의 활동 주역으로 매년 연등행렬을 주도할 뿐 아니라 삼보일배 정진, 동지팥죽 나눔, 자비의 떡국 판매 등 다채로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찰기행을 통한 문화탐방순례,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개최하는 일일찻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등 동문회 활동은 범어사를 넘어 부산불교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여 이사장은 검은 정장에 꽂은 배지를 매만졌다. 배지에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행하자'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불교대학 학훈이다. 여 이사장은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항상 잊지 않고 옷깃에 달아 둔다"고 했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활동은 여 이사장의 숨은 봉사현장 중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며 그동안 진행한 봉사활동에 대해 물었다.

"연탄 나눔을 해마다 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조정위원, 마약퇴치 캠페인…"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뭘 이런 걸 설명을 해요?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변에 많은 도반들이 봉사를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물이 든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소속된 기관이 봉사단체여서 삶이 온통 봉사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삶입니다."

조금만 더 봉사와 나눔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그녀는 말을 아끼며 미소만 지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여 이사장은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눌했고 거칠게 갈라져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이사장은 곧장 한의원으로 연락해 한약을 보내야 한다며 직원을 재촉했고 통화를 마칠 때 쯤 "돈은 제가 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약값을 안 받느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크게 한 번 더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기도로 이어가는 신행

여 이사장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녔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을 찾을 때면 언제나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절을 찾은 건 청년기에 접어든 스무 살 때였다. 누구나 그렇듯이 스무 살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중요한 때이다. 여 이사장 역시 인생의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중요하고 간절한 시절이었다. 그 때 여 이사장은 부처님과 만난다.

"제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연재에 들어가며

B5
문화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

B6
학술 · 문화재
아픈 우리 문화재 수난사 총망라